

논문과 취업의 연관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수준 그리고 IT 기업에서 기대하는 인재들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논문이 취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본 저자의 생각을 서술해 보도록 한다.

1)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교 수학 기간 동안 많은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지만 교수님들이 모든 학생의 보고서와 발표자료에 대해 꼼꼼히 지도하는 것은 시간적 여건 상 어렵다. 따라서 해당 문제점이 4년 간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에 대한 연습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IT 기술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 보는 것을 권장한다. 논문은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본 저자의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한성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본 저자가 지도한 후에 KCI 논문을 게재한 것을 볼 수 있다. 즉 저자는 한성대학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서 논문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하고 자신의 기술을 현 시대 최고 기술과 붙여놓고 냉정하게 평가해야한다. 이러한 연습이 되지 않은 경우 대학교 4학년 졸업 작품에서 5년 전에 실용화가 되어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기업 면접에서 가장 빈번히 물어보는 질문인 졸업 작품에 대해 설명할 때 기업에서 5년 전에 만든 제품을 설명하는 슬픈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다.

2) 놀랍게도 IT 회사에서는 업무가 최신 논문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예전과 달리 최신 기술에 대한 구현이 오픈 소스화됨과 동시에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다. 만약 논문을 써본 경험이 있다면 논문을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며 경험이 없는 이보다는 보다 능숙하게 논문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논문을 작성한 것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 보는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명한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해 봄으로써 학교에서와는 다른 긴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질의응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이후에는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